

환경생태계위해외래식물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의 대전광역시 내 분포현황

김동갑, 황승현, 김진만, 김주환

대전대학교 생명과학과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인간 활동의 증가는 자연생태계의 변화속도를 가속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안정과 균형속에서 유지되던 자연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파괴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토착종들의 저항성이 감소된 지역에서는 외래식물의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환경생태계위해외래식물은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유발 외에도, 자연생태계내의 구조를 변경시킴으로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교통·산업·연구 및 교육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전광역시 내 외래식물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 고시 자연환경법 제 2조 제 18호로 지정·고시 되어있는 환경생태계위해외래식물의 대전광역시 일대의 정확한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분포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대전광역시의 생물종 Monitoring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환경생태계위해외래식물인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과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의 분포조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대를 1km×1km의 정방형 격자로 구분하고, 도 경계지역은 지점에 따라 다소 변형된 격자로 구획하였다. 조사지역의 구분은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외래식물의 출현빈도가 높을 것으로 고려되는 하천을 중점조사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경작지, 신개발지 등의 지역을 일반조사지역으로, 산지가 포함된 지역을 산림지역으로, 시내의 건물밀집지역과 아파트 등의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돼지풀은 대전광역시 592구역 중 총 115구역(19.4%)에서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권역별로는 하천지역 105구역 중 84구역(80%), 일반조사지역 136구역 중 17구역(12.5%), 도심지역 84구역 중 4구역(4.7%), 산지지역 267구역 중 10구역(3.7%)에서 분포가 확인되었다. 단풍잎돼지풀은 총 592구역 중 28구역(4.7%)에서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권역별로는 하천지역 105구역 중 25구역(23.8%), 일반조사지역 136구역중 3구역(2.2%)에서 분포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래식물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와 외래식물 관리와 조절을 위한 외래식물등급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